



6월 30일 김제 금산사에서는 개그맨 김병만이 특별 게스트로 참가해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진은 일감 스님(사진 오른쪽)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 현장



개그맨 김병만과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들이 즐겁게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모습



선재 스님도 특별 강사로 초청돼 사찰음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 “나는 꿈이 있어 행복했다”...거북이는 지치지 않아

김제 금산사 '나는야 꿈꾸는 거북이' 템플스테이 진행  
달인 김병만 장애인들에 희망·용기 메시지 전해

“개그맨 시험에 7번 실패하고 8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예전 입학시험은 6번이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도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 30일 저녁, 때마침 오랜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렸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제 금산사 보제루 앞마당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7월 1~2일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에서 '나는야 꿈꾸는 거북이' 템플스테이를 펼쳤다. 행사에는 개그맨 김병만과, 금산사 일감 스님, 사찰음식연구가 선재 스님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 승가원, 전북지역

특수학교 학생,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400여 명이 모여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김병만은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책 제목을 주제로 참가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행사는 일감 스님의 사회로 학생들이 묻고 김병만이 답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TV에서만 보던 유명 개그맨이 나와서인지 학생들은 유달리 꿈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김병만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김병만은 “저는 개그맨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어릴 적부터 울렁증이

심해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개그맨이 되고 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설명했다. 집에서 연말 시상식을 TV로 시청하면서 “거북이처럼 열심히 노력하자.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거듭 다짐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이습우화 ‘도끼와 거북이’의 거북이로 표현하며 꾸준히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왔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인기 개그맨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학생들에게 진솔하게 말하며 “항상 꿈이 있어 행복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생들은 김병만의 이야기에 점점 몰입해 갔다. 호기심이 넘쳐났던 유년시절, 부모님과의 일화, 개그맨 활동 등 수 많은 이야기가 북물처럼 터져 나왔다.

김병만은 또 장애인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장애를 가진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장애는 절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애는 인생의 걸림돌이나 꿈 위해 당당히 일어서야”

장애인·비장애인 400여명  
편견없는 교류의 장 마련

“장애우들은 스스로가 답을 쌓지 말아야 한다. 당당하게 사회에 나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야 한다”며 “스스로 낙담하는 것은 좌절과 불행만이 있을 뿐이다. 주변에서도 동정보다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쑥을 부린다고 야단만 치면 안 된다.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큰 인물로 자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병만의 에세이집 <꿈꾸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를 읽고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는 김혜연(14) 학생은 “김병만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꿈을 갖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제 꿈은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찰리 채플린처럼 말은 통하지 않아도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희극배우가 되고 싶다”고 희망했다.

행사에 참가한 이영주(29)씨는 “김병만 씨의 방송에서는 보지 못하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동이었다”며 “무명 시절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뒤의 피나는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

함으로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듯한 느낌도 들었고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행사에는 사찰음식연구가 선재 스님이 참여해 연잎밥, 우영 버섯볶음, 두부요리, 현미쌀 떡볶이 등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선재 스님은 장애인들과 부모들에게 사찰음식을 함께 체험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강연했다.

또 가수 박경수의 공연을 비롯해 비보이 공연, 버블 및 마음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된 ‘숲속의 작은 콘서트’가 함께 열렸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통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이런 템플스테이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제 금산사=조동제 전북지사장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종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중앙비구니회장 해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중앙문화원장 무향 (천수바라부, 살풀이)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규 정 부 장 수연 범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리마)

이 사 장 해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중앙총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무불,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총회의원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 교 원 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총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대구총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사천총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증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敎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무도 연맹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신신릿장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철현연합 입증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